

대중음악

통권 34호 2024년

대중음악

Korean Journal of Popular Music

통권 34호 2024년

권두언 / 이기웅	5
가(歌)·요(謠)·곡(曲)의 해부학 5	
- 새벽의 '노래운동'과 투쟁가, 서정곡, 서사요 1977-1993 - / 신현준	9
K-POP에서 활용되는 샘플링 기법 분석	
- 한국 4대 기획사 출신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 / 이경주 · 박재록	55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리믹스 기법 분석	
-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 - / 정진	85
성장과 빈곤 - 국내 K-pop 연구 20년 동향 - / 채석진·이정엽	119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칙	161
한국대중음악학회 연구윤리 규정	167
편집위원회 규정	172
학술논문집 발행 규정	174
논문 심사 규정	175
논문 투고 규정	178

권 / 두 / 언

이기웅(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장)

한국대중음악학회의 학술지 <대중음악>이 어느덧 34호의 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중음악>은 대중음악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장의 연륜과 그에 걸맞는 권위를 지닌 학술지임을 자부한다. <대중음악>의 이러한 지위는 무엇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게재 논문의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혹 논문 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있지만, <대중음악>의 높은 심사 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어가야 할 자랑스런 전통이라 생각한다. 이번 호에 비교적 적은 수의 논문이 실리게 된 것도 우리 학회의 높은 기준을 충족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이번에 게재되지 못한 논문들은 수정 및 보완을 걸쳐 다음 호에는 꼭 실릴 수 있길 기대한다.

<대중음악> 34호에는 총 네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중 두 편은 케이팝 프로듀싱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두 편은 대중음악(학) 역사에 관한 연구다. 이 두 주제는 현재 한국대중음악학회를 이루고 있는 두 경향, 즉 실용음악 연구자들의 현업에 밀착한 연구와 인문사회과학 기반 연구자

들의 음악문화 연구를 각각 표상한다. 정진은 BTS의 노래 “Dynamite”의 리믹스 버전들을 비교함으로써 상이한 버전이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규명한다. 리믹스는 스트리밍으로의 전환과 함께 유력하게 부상한 대중음악의 생산 방식으로서, 하나의 곡을 복수화하여 대중음악의 진본성 개념에 균열을 가하고 소비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제는 일상화된 리믹스 버전 간 차이와 동일성이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해 정진은 음악 텍스트에 대한 형식적 분석을 통해 대답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경주와 박재록은 케이팝에서 사용되는 샘플링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여기서 이들은 케이팝이 다양한 음악적 재료를 샘플로 활용함으로써 사운드의 외연을 확장하고 혼종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샘플링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특정 시기에 특정 장르의 음악이 샘플로서 많이 활용된다는 일종의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리믹스와 마찬가지로 샘플링 역시 녹음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녹음된 음원의 조작 및 병치를 통해 새로운 사운드 혹은 음악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고전적 의미의 악기 연주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같은 절대성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다. 악기와 악보 없는 음악에 관한 질문은 대중음악학의 학문적 성찰에서 점점 더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정진의 연구와 이경주·박재록의 연구는 이런 점에서 오늘날 대중음악이 상상되고 만들어지는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에 따른 연구자의 관심은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현준은 50쪽에 육박하는 대작 논문에서 ‘가-요-곡’을 키워드로 20세기 말 한국 민중가요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을 선보인다. 그는 시계공과 같은 정밀함으로 같은 듯 상이한 개념들을 엄밀하게 정의해내고, 이 작업의 토대 위에서 노래운동 단체 ‘새벽’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중가요와 민중

가요라는 오랜 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다. 지난 6월에 열린 한국대중음악 학회 제34회 학술대회에서도 본 것처럼 민중가요가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국내외 젊은 대중음악 연구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연구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듯하다. 신현준의 논쟁적이고 의견이 강한 논문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응답을 촉발하여 민중가요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할 수 있기 바란다.

채석진과 이정엽의 연구는 케이팝 연구사에 관한 메타 연구다. 이들은 2005년 이후 국내 학술지에 한글로 발표된 케이팝 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의 주요 발견은 케이팝 연구가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맹점으로 남아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케이팝 연구를 위한 이론이나 분석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케이팝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막연히 느꼈던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 현재 케이팝 연구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에 따라 향후 케이팝 연구를 계획하는데 방향을 잡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팝 연구는 연혁이 비교적 짧은 만큼 그동안의 연구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 논문은 케이팝 연구의 자기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나온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중음악〉 34호는 작지만 알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대 한국 대중음악에 관한 학술적 최전선에서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제는 일상화되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리믹스와 샘플링의 새로운 이해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오래 전 일단락된 듯 보였던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동시대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케이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치우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 상황은 어떻게 타개가 가능할까? 이를 비롯한 많은 질문들이

〈대중음악〉 34호를 읽으며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이들 화두를 가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대중음악〉 34호는 그 발간의 의미가 충분할 것이다. 물론 그림에도 좀 더 많은 논문과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이 말끔히 가시기를 기대해본다.